



“진단은 평생 직업입니다”

에너지진단만 23년, “일을 못하는 날까지 진단을 계속할 계획”이라는 에너지관리공단 진단실 정구룡 부장. “국내 에너지진단의 산역사이자 산증인”인 그에게 들어보는 에너지진단 이야기-

■ 박정미 기자(psn0304@energycenter.co.kr)

‘에너지진단전문가’ 라고 하면 에너지관리공단 직원들은 약속이나 한 듯 이구동성으로 이 사람을 꼽는다. 그도 그럴 것이 공단이 설립된 이듬해인 1981년에 입사해 지금까지 4년을 빼고 진단업무만 해왔기 때문이다.

현재 에너지관리공단 에너지진단실 팀장인 정구룡 부장이 바로 그다. 진단의 수준을 등급별로 매긴다면 경험과 노하우는 최고 등급의 필수조건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

그를 에너지진단의 ‘산역사이자 증인’ 이라고 주저 없이 꼽게 된 요인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 에너지진단의 ‘최고수’ 자리에 앉을 수는 없다.

“진단의 절정은 에너지진단 이후 창의력 있는 에너지절감개선 아이템입니다. 피진단 업체가 생각지도 못한 아이디어를 제시해

야 진단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절감하고 진단을 하는 입장에서는 최고의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 부장이 말하는 실력 있는 진단사의 자격요건이다.

요즘 정 부장은 조금 들떠있다. 에너지진단의무화로 인해 진단이 보편화되는 것과 함께 진단사의 위상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아이러니컬하게도 에너지진단은 받은 업체가 또 받습니다. 진단의 맛을 알기 때문이죠. 앞으로 에너지진단의무화가 돼 진단이 보편화되면 산업체가 원가절감을 위해 에너지진단이 얼마나 필요한지 절실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실력 있는 진단사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게 될 것이고 진단사의 중요성을 말하지 않아도 알 것입니다.”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무조건 원가절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에너지진단은 우리회사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지 점검하고 비효율적이면 이의 개선을 통해 에너지비용을 절감하는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 다른 부분에서 원가절감요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가 당장 심각한 질병에 걸리지 않아도 건강진단을 받는 것과 같은 이치지요. 그런데 건강진단은 건강관정을 받으면 안도의 한숨을 쉬지만 에너지진단의 경우 절감요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역지로 절감요인을 만들어 달라고 하는 피진단기관이 있습니다. 이럴 때가 참 난감합니다. 피진단기관 관리자들의 입장에서 진단용역비를 투입했으니 그 이상의 효과를 봐야한다는 생각인데 진단에 대한 정확한 마인드를 가지도록 교육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에너지진단의 고수가 가장 보람을 느낄 때는 역시 진단 후 에너지설비나 공정개선을 통해 절감효과를 톡톡히 봤을 때다.

“2000년도에 올산에 있는 삼성BP를 진단한 적이 있는데 진단 후 설비개선을 통해 1년에 50억원씩을 절감했습니다. 이 회사는 삼성그룹과 영국브리티시케미컬과의 합작회사로 17개국에 자회사를 가진 다국적 기업인데 진단 받을 당시 세계 3위를 하고 있다가 진단 후 2위에 올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회사는 또 에너지절약의 중요성을 깨닫고 기술특허까지 냈습니다. 이럴 때 업무로 인한 애로사항이 언제 있었느냐는 듯 상당한 기쁨과 보람을 느낍니다.”

진단업무 23년. 그의 애환이라면 업무의 특성상 전국팔도 구석구석 안 가본 데가 없을 정도로 잦은 출장은 물론 장기출장의 연속으로 가정생활에 충실할 수 없었다는 것.

“당시에는 개인교통수단이나 도로사정도 별로 좋지 않아 엄청나게 무거운 장비를 가지고 고속버스나, 기차를 타고 다녀야 했습니다. 한번 출장을 가면 보름이 기본이었지요. 한번은 딸들이 아빠 얼굴을 알아보지 못하고 이상한 아저씨가 온 줄 알고 엄마 치마 뒤에 숨어 울음을 터뜨리는데 참 마음이 아프더라구요.”

그 딸들이 지금은 장성해서 사회인이 되고보니 혼자서 충실하게 가정을 일궈온 아내에게 제일 고맙다고 소회했다.

하지만 그 덕분에 등산 매니아가 됐다. 출장 중 휴일 날, 근처의 산에 오르다가 등산의 묘미를 느껴 지금은 국내의 산은 물론이고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인도네시아 린자니 등 세계의 명산까지 원정갈 정도다.

올해 6월 퇴직을 앞둔 정 부장은 아프리카 킬리만자로 등반계획을 세우고 있다.

그러나 그는 “산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을 주는 삶의 활력소이지 목표는 아니”라며 “퇴직 후에도 일을 못하는 날까지 에너지진단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은 진단을 컨설팅이라고 하는데 컨설팅이 과거에는 직업으로서의 수요가 별로 없었지만 지금은 각광받는 지식 산업입니다. **진단이라는 컨설팅 능력은 직장을 넘어 하나의 직업으로서 평생 활용 할 수 있는 무기라고 봅니다.** 진단사로서의 자질을 끊임없이 높이는 것은 물론 충분히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만 합니다.”



▲ 히말라야 킬리파트라 등반 당시의 정규룡 부장